

땀의 가치 느낀 '홀드왕' 장현식, 올 시즌 더 독하게 준비

KIA 함평 스프링캠프를 가다

타이거즈 유일의 '홀드왕' 장현식이 더 독하게 2022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장현식은 지난해 34개의 홀드를 수확하면서 KBO리그 홀드 1위에 등극했다. 타이거즈 첫 홀드왕에도 이름을 올렸다.

화려한 마무리였지만 시작은 미약했다. 장현식은 지난해 퓨처스리그에서 캠프를 치렀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며 조용히 칼을 갈았던 장현식은 시즌 중반 팀의 필승조로 발돋움한 뒤 홀드왕까지 내달렸다.

장현식은 "시상식에 가보니까 계속 가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처음 가는 그런 자리였다"며 KBO 시상식을 떠올렸다.

장현식이 시상식에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노력'이었다.

비시즌 기간 장현식은 일요일 하루 휴식날 외에 자기와 싸움을 하면서 훈련했다. 매일 달리면서 개인 훈련에 6-7시간을 쏟아부었던 장현식은 결국 노력의 결실을 이뤘다.

땀의 가치를 배운 만큼 장현식은 이번 겨울 더 독하게 달렸다.

장현식은 "겨울에 준비를 잘했다. 작년하고 똑같

개막전에 맞춰 첫 불펜 피칭
작년보다 홀드 더 많이하고 싶어
또 다른 무기 스피리터 연마
기복 줄이고 자신있게 던질 것

이 했는데 더 많이 했다. 아침에 해 뜰 때 나갔다가 해가 지면 들어 왔다"며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 작년 이상의 결과를 못 낼 것 같아서 더 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확실한 목표가 생겼다는 점이다. 장현식은 개막전에 맞춰 캠프를 치르고 있다. 9월에는 첫 불펜피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새 시즌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장현식은 "페이스는 작년하고 비슷하데 조금 천천히 하고 있다. 개막전에 맞추고 있다"며 "피칭은 처음 치고 나쁘지 않았다. 생각한 대로 잘 된 것 같다. 포수 앉히고 처음 던지는 것이라서 느낌을 보려고 했다. 옛날 같이 헛갈리지 않고 던지는 게 정립된 것 같다"고 첫 불펜피칭을 평가했다.

개막전을 목표로 잡은 장현식은 '기복 줄이기'를 또 다른 숙제로 삼았다.

그는 "작년 전반기에 기복이 심했는데 처음부터

기복이 없도록 하는 게 첫 목표다. 작년보다 홀드를 더 많이 하고 싶다. 2배를 달성하고 싶다(웃음)"며 "(올 시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지만) 나는 존이 크든 작든 타자가 칠 수 있게 공격적으로 던지는 스타일이다. 파워로 해야 하는 투수라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고 이야기를 했다.

공격적인 싸움을 위해 또 다른 무기도 장착하고 있다. 장현식은 이번 캠프에서 자신만의 스피리터를 연마하고 있다.

장현식은 "스피리터를 연마하고 있다.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비율을 높이고 싶다. 오른손 타자한테는 슬라이더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좌타자는 그렇지 않아 스피리터가 승부를 위한 키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상 많이 찾아보고 시도해보다가 어느 정도 내 것이 생겨서 그대로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식은 지난 시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를 직접 보여줬다. 연봉도 1억 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90.5% 인상되면서 팀 내 비 FA 최고 연봉자가 됐다.

장현식은 "부모님께서 돈을 따라가지 말고 야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라 되라고 하셨다. 그러면 돈도 따라온다고 하셨다"며 "얼마만큼 준비했냐에 따라서 자신감이 비례하는 것 같다. 동료들과 열심히 배우고 서로 도우면서 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투수 장현식이 불펜에서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투수 이의리(왼쪽)와 최지민이 나란히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눈길 끈 불펜 '슈퍼데이' 장현식·정해영 등 핵심 멤버들 필승조 위엄 보여줘 KIA의 미래 이의리·최지민 나란히 피칭, 관심 쏠려

함평 챔피언스필드 불펜에 '슈퍼데이'가 찾아왔다.

KIA는 지난 3일 하프피칭을 시작으로 불펜 가동에 들어갔다. 선수마다 다른 각격으로 불펜피칭에 돌입하면서 서서히 불펜이 달궈졌다. 그리고 9일 KIA 마운드의 핵심 멤버가 동시에 불펜에서 땀을 흘리며 눈길을 끌었다.

이날 캠프 첫 피칭에 나선 '홀드왕' 장현식과 함께 정해영, 정해영이 나란히 공을 던지면서 필승조의 위엄을 보여줬다.

외국인 투수 로니는 세 번째 피칭을 하면서 공인구 적응에 나섰다. 김중국 감독이 선발전의 한 축으로 설정해 놓은 임기영도 두 번째 피칭을 소화했다.

불펜의 '만행' 홍상삼도 공을 던진 이날, 피칭 마지막조에 관심이 쏠렸다.

KIA의 '미래' 이의리와 최지민이 나란히 서서 공을 던졌다.

이번 캠프 들어 처음 불펜에 자리한 '신인왕' 이

의리는 가볍게 하프 피칭을 하면서 실전 준비를 위한 스타트를 끊었다. '루키' 최지민은 세 번째 피칭을 하면서 프로 첫 캠프 적응을 끝냈다.

이의리는 지난 시즌 KIA 선발전의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팀의 미래로 급부상한 좌완 투수. 역시 좌완인 최지민은 KIA가 2차 1라운드로 선택한 특급 기대주다.

KIA의 미래가 나란히 공을 던지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불펜에 쏠렸다. 김중국 감독은 물론 장정석 단장도 두 사람의 피칭을 지켜봤다.

이의리는 "가볍게 던졌다. 코치님께서 무리하지 말고 밸런스로 하라고 하셨다. 좋았다"며 "다음 피칭도 밸런스에 신경쓰면서 할 생각이다. 밸런스가 투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느긋하게 컨디션 점검한 이의리와 달리 최지민은 이것저것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우선 '팔각도'라는 숙제가 있다.

최지민은 "팔각도가 낮아서 코치님이 올리라고

하신다. 몸이 급하다 보니까 팔이 낮아졌다. 몸을 천천히 해서 나가라고 하셔서 그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며 "다음에는 제구에 신경 쓰려고 한다. 미트만 보고 던지려고 하나 제구가 잡혔는데 지금은 들쭉날쭉하다. 이제는 제구를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구라는 또 다른 숙제를 얻었지만 볼모델인 이의리와 나란히 공을 던진 최지민에게는 뜻깊다. 이의리를 볼모델로 언급했던 최지민은 "같이 던져서 영광이다"며 웃음을 보였다.

이제 2년 차 어린 선수지만 선배이기도 한 이의리는 후배에게 '의욕'을 이야기했다.

이의리는 "작년에는 나도 의욕이 넘쳐서 전력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부드럽게 하고 있다"며 "(신인 입장에서) 힘 빼라고 해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처음 하면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냥 (지민이가) 의욕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도청 펜싱 최세빈 올 첫 전국대회 우승

종별선수권 사브르 단체전 은메달

전남도청 펜싱팀이 2022년 첫 전국대회에서 선전했다.

전남도청 펜싱팀이 최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2년 전국남·녀 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사브르 개인전 금메달 1개,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최세빈(전남도청)은 사브르 결승에서 윤소현(대전시청)을 15-14로 제압,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무패 우승을 차지했다.

최세빈은 16강전에서 이슬(대전광역시청), 8강전에서 김지영(안산시청), 4강전에서 홍하은(서울시청)을 차례대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

전남도청은 단체전(최세빈·김지현·전수인·손정민)에서도 은메달을 땀다. 전남도청 펜싱팀은 올 시즌을 앞두고 동계 전지훈련을 통해 기술적인 부



전남도청 펜싱팀 선수들이 전국남·녀 종목별 오픈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선발대회에서 선전을 기념하고 있다. <전남도청 펜싱팀 제공>

분을 보완한 점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올해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매우 기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잘 따라와준 선수들에게 감사하다. 올 시즌 좋은 성적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광주FC, '슈퍼 루키' 정종훈 우선지명

금호고 출신 촉망받는 공격수

광주FC가 '슈퍼루키' 정종훈(18·사진)을 불러들였다.

광주는 9일 산하 U-18 금호고 출신 공격수 정종훈을 우선지명으로 뽑았다.

고교 졸업과 함께 프로 무대에 뛰어든 정종훈(174cm·69kg)은 공간침투와 마무리 능력이 뛰어난 공격수로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발기술로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다.

그는 1학년이었던 2019년 K리그 U-18 챔피언십과 2019 전국고교왕중왕전에서 알토란같은 활약을 펼치며 전국대회 2연패에 기여했다. 2020 K리그 주니어 B조 우승에도 함께 했다.

2021년에는 팀의 주장으로 K리그 U-18 챔피언십 준우승을 이끌었다.

2020년 첫 태극마크를 단 정종훈은 같은해 알가르베 U-17 국제대회에서 맹활약을 했고, 최근



에는 U-18 대표팀에 소집돼 국내훈련을 소화하는 등 촉망받는 유망주로 꼽힌다. 정종훈은 "유스 출신으로 광주의 모든 경기를 지켜보며 K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나의 모습을 꿈꿔왔다.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돼 기쁘고 팀에 큰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아직 부족한데 많지만 선배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성장해 팀에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해적: 도깨비 깃발
- 2관 해적: 도깨비 깃발, 생2계더
- 3관 킹메이커
- 4관 나일 강의 죽음
- 5관 해적: 도깨비 깃발, 355
- 6관 나일 강의 죽음
- 9관 킹메이커
- 7관 씨네케틀 해적: 도깨비 깃발, 특송, 경관의 피
- 8관 씨네케틀 해적: 도깨비 깃발, 특송, 경관의 피

8관 씨네케틀 해적: 도깨비 깃발, 특송, 경관의 피
킹메이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만년키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포커스
프렌즈 클래식 사파리
일시 : 2022.03.03.(목)-04.(금)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GAC기획공연 포커스
조진주 & 앙상블 아파시오나토
일시 : 2022.02.24.(목)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5